

안일순

금이야, 스물여섯 좋은 나이에
 그리도 가고 싶던 동서학동 고향집에 묻혀지도 못하고
 빈 들판 스산한 바람 속으로 상여도 없이
 한줌 먼지가 되어 이대로 상여도 없이
 흙튼 두눈 감지 못하고 이대로 저세상 가는거니
 아직도 동두천 진구렁에 빠진 친구를 그냥 두고
 이대로 너만 혼자 저세상 가는 거니
 무서워라 이세상 피곤죽이된 너의 주검
 사느개 지옥이더니 숨쉬는게 고통이더니
 무서워라 흉몽인가 살같이 벌벌떨러
 살아서도 기막힌 목숨 죽어서도 버려졌으니
 참혹해라 금이인생 불쌍하다 우리 인생
 동두천 여자들은 이나라 시민이 아니지
 슬하게 매맞고 슬하게 강간당하고 슬하게 죽어도
 말바닥중의 밑바닥 싸구려 여자들의 목숨 하나
 어디 새삼스런 일이드나

소요산 자락 무시무시한 핵기지라는
 보산동 캠프케이시 제 2보병사단
 일만오천 미군 지아이 따라
 평택에서 흘러온 금이야
 여기는 기지촌 중의 기지촌
 지금도 하늘엔 검은 헬리콥터 나르고
 거리엔 탱크, 미군트럭 질주하는데
 금이야 어찌자고 너는 여기까지 온거냐
 필릭이는 성조기 아래 이나라 식민지 여자들이
 혈맹의 병사에게 알몸째 내던지는
 살벌한 치외법권시대 이 동토의 유배지에
 금이야 어찌자고 너는 여기까지 왔느냐
 아무도 이 나라가 식민지 땅 아니라는데
 아무도 지금은 전시가 아니라는데
 아버지는 구호물자 얻어먹고 어미는 부황뽕 얼굴에

그래, 너희가 남북대화 약속하며 정치 흥정 할 때에
 우리는 텃스프리트 훈련장 가건물에 드러누워
 하루 열다섯명까지 미군병사 받았다.

지금 이시대에도 근데 창녀있어요?
 그래, 너희들이 김포공항 밀려드는 바이어들 맞을때
 무기상인에게 검은돈을 뿌릴때
 우리는 노린내를 풍기며 적군처럼 달겨드는
 텍사스 촌놈을 하혈하면서도 받아 내었다.

지금 이시대에도 판자집이 있어요?
 그래, 너희들이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으며
 아파트의 뜨거운 욕탕에서 샤워를 할 때
 우리는 독한 연탄냄새 가득한 굴 속 같은 방에서
 어린딸 티나를 잠재워 놓고 몸을 팔았다.

지금 이시대에도 미국병에 걸려 동두천을 떠나지 못하는 여자들 많다면서요?
 그래, 너희들이 몸싸움에서 영계를 찾을때,
 정절이 목숨보다 소중한 이나라에서
 그나마 과거를 묻지 않는 미국남자 하나 잡아
 미국에서 새생활하리란 꿈에 매달리며 여기 남았다.

금이야, 왜 착하고 순진한 여자는 동두천에 다 모이는거니?
 금이야, 왜 기지촌 여자들은 이렇게 죽어가야 하는거니?
 지절이도 못한 금이야, 가난이 무슨 죄라고
 여자의 과거가 그 무슨 천형이라도 된다고
 동두천을 못떠나고 이렇게 죽었니

금이야, 네가 죽어 실려나간 그 이튿날도
 우리는 열방에서 몸을 팔았다.
 신문엔 클린턴 사진으로 연일 도배질 하는데
 구석엔 삼단으로 살해된 동두천 여자의 초라한 사진
 한달이 지나면 바람처럼 잊혀질 여자
 피와 오욕 속에 죽은 너에게
 값싼 연민이 눈물따윈 흘리지 않을란다.

똑똑히 보아라! 외면하지 말아라! 귀를 막지 말아라!
 이나라 여자가 어떻게 죽어 있는지 똑똑히 보거라

썩떡을 해먹으며 너를 낳았지
 중학교도 제대로 못다니고 열여섯 어린 나이에
 구로동 봉계공장 공순이가 된 전라도 여자
 가난에 등 떠밀려 문산 송탄 군산 거쳐
 결국 너도 동두천 여자 되었구나

'불꽃동네'에 해겨름지고
 파라다이스, 크라운, 블랙로즈에서
 휘황한 네온사인 번쩍거리면
 가슴에 털난 야행짐승들은 싸구려 코리아 여자를 찾아
 발정난 숯게처럼 이골목 저골목 기웃거리지
 그날도 너는 한달 사만원짜리 침침한 판자셋방
 연탄불도 꺼진 냉랭한 방에서 죽음같은 잠을 자고
 선풍기에 말린 눅눅한 옷을 입고 허기진 뱃속으로
 크라운 클럽에 나왔지
 한달 벌이 이십만원 느는 것은 빗 뿐
 뒷에 걸린 짐승처럼 몸부림 칠수록 버둥거릴수록 조여드는 빗
 꽃도 팔고 몸도 팔고 때론 구걸도 했지
 술을 먹지 않고서는 감기약 스무알을 털어넣지 않고서는
 맨정신으로 굴속같은 매음굴에 들어갈 수 없어
 색지옥이 험물어 매어달려 양다리를 벌리고
 람보의 나라 달리를 가진 어글리 아메리칸을 기다렸지
 케네스 미군, 네가 네 나라 땅 뉴욕 할렘가의 홀리스였던
 텍사스의 총잡이였던 절도범이든 게이든 변태성욕자이든
 살아남기 위해선 무슨 짓은 못하라
 화장독 오른 남빛 얼굴에 어거지 웃음 지으며
 하이 양키 오우케이, 보스톤 할아버지도 오케이
 달리를 벌기 위해선 무슨짓이든 못하라
 더러운 춘화 속의 여자가 되어
 변태성욕 고문처럼 받아내며
 험떡이는 가쁜 숨소리 소름돋는 두려움에 부들부들 떨려도
 조금만 견디지 조금만 견디면 긴밤짜리 백불이 생긴대
 아아 그러나 금이야, 너는 미치 몸부림치며 울부짖으며
 나는 짐승이 아냐. 나는 짐승이 아냐
 피터지게 외치며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고향쳐어도
 아무도 아무도 오지 않았지

지금 이시대에도 정신대가 있어요?

피곤죽된 주검 으깨어진 얼굴에
 너 반쯤 벌린 검푸른 입술은 무엇을 말하려 함이나?
 피에 젖은 머리칼 아래
 니 흙튼 두 눈은 무엇을 보고 있느냐?
 갈퀴같이 오그라든 뺨뺨한 네 손은
 무엇을 움켜 잡으려 했느냐?
 유리조각에 너털거리는 살점
 아아 여자의 자궁안에 콜라병이러니!
 고개를 돌리지 말아라. 죽은 금이를 똑바라 보아라
 참혹한 너의 주검을 선진조국 대로 위에 깃발처럼 올리고
 반도의 수치심을 깨우는 목소리처럼
 아우성치며 나무끼게 해야 한다.
 너를 죽인 마이클이 법정에서 서서
 천인공노할 잔혹의 범죄를 날날이 고백할 때까지
 기지촌 여자들이 더이상 죽어나가지 않을 때까지
 그리고 그자가 우리의 손으로 응징될때까지
 너의 주검을 이 가슴에 붙이는 인두로서 화인을 찍으리라
 금이야 우리들이 너의 원혼을 갚아줄 때까지
 귀곡성을 울며 구천에서 떠도는 한이 있더라도
 이승을 떠나지 말아라
 철조망도 미군도 가난도 D.M.Z도 없는 나라
 피흘림도 고통도 양공주도 없는 좋은 세상만들 때까지
 너는 그렇게 깃발처럼 나무끼며 우리들 가슴에 살아있어다오